

3·8 조합장 선거 종반전... 5선·금녀의 벽 깨질까

5선 배출 관심·여성 5명 도전 광주·남광주·순천·남평농협 등 치열한 격전... 막판 변수 주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종반전을 치닫으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막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5선, 여성조합장 탄생 등 세 번째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200개 조합장선거 중 4곳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광주는 광산구 삼도농협과 동곡농협, 전남에서는 해남 산이농협과 여수 거문도수협이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경쟁률이 가장 높다.

동곡농협은 유상선 전 동곡농협 조합장, 유영권 전 동곡농협 감사, 이동은 현 동곡농협 조합장, 김성훈 전 동곡농협 이사, 강재천 전 순천강남여고 교사가 뛰고 있다.

거문도수협은 김석환 현 거문도수협 조합장과 김효열 전 거문도수협 조합장, 박광영 현 거문교회 시무장로, 이재흠 전 여수시청 심산면 부면장, 김은석 전 거문도수협 팀장이 표밭을 갈고 있다.

4선인 전봉식 대촌농협 조합장이 5선에 성공할지도 관심이다. 3선인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박흥식 광주비이농협 조합장·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의 4선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에서는 담양지역의 박요진 현 봉산농협조합장과 최창기 고서 현 조합장이 3선 도전에 나섰다. 봉산농협의 경우 역대 선거에서 3선임 조합장이 탄생한 적이

없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금녀의 벽’을 깨고 여성 조합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광주에서 본량농협장 선거에 이육근 전 본량농협장 전무가 도전했다.

전남에서도 고흥농동농협조합장 선거에 정종연 전 녹동농협도덕지점장, 광양진상농협조합장선거에 강인숙씨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제2회 선거에서는 고흥군 풍양농협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여성 조합장이 배출됐다.

광주는 광주농협과 남광주농협이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4선 도전에 나서는 한진섭 현 조합장에 맞서 서순택 전 자미영농조합 대표와 문완식 전 광주농협 상임감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현직 조합장이 부재해 무주공산인 남

광주농협도 정남석 현 남광주농협 이사와 이영중 전 남광주농협 조합장, 최종섭 전 남광주농협 조합장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시·군에서 최대 규모 조합인 순천농협과 남평농협 등이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순천농협은 4선을 노리는 현 조합장 강성채 후보에 맞서 세대교체와 변화를 기치로 내세운 최남후·채규현·조원익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표밭을 갈고 있다.

남평농협은 신광섭 전 남평농협 상무와 신지환 전 남평농협 비상임이사, 윤달현 전 남평농협 본부장 간 한판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잡음도 있지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6→8% 목포시 3월부터

목포시는 3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비지원 전액 삭감 방침에 따라 상시할인율을 6% 적용했으나 최근 국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른 것. 목포시는 명절이 속한 달에는 특별할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할인율을 10%로 올려 판매할 계획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QR결제형) 3가지 유형으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목포시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액 규모를 당초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맹점은 물론 전남형 공공배달앱인 ‘떡깨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시·군 가축분뇨 분석 담당자 교육 전남농기원, 농기센터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시·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속도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습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미부속 퇴·액비 살포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부속도 분석결과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연구원의 지도를 받아 시료 채취부터 솔비타, 콤팩, 종자발아법을 통한 부속도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속도 검사를 받으려면 원주 4분법을 통해 시료(500g)를 용기에 담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관수 전남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토양환경 개선과 축산 냄새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확한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봄철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 영산강청,첨단감시장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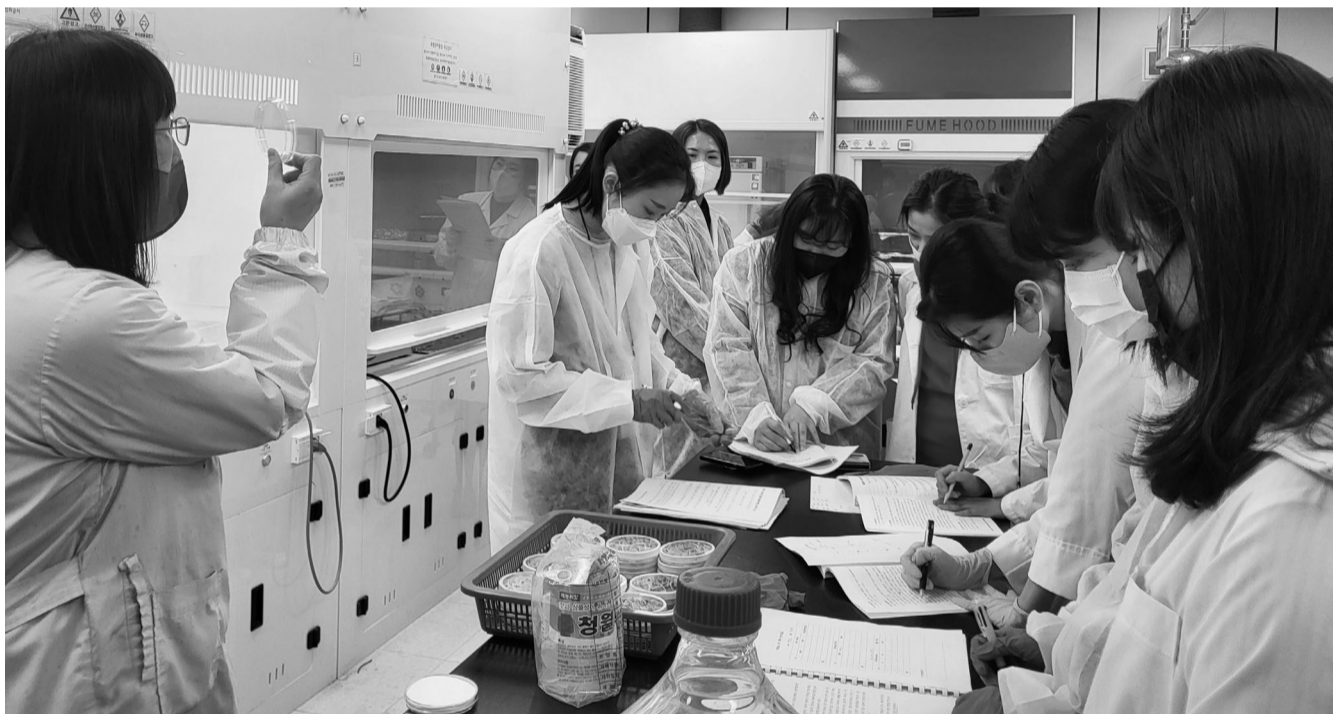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성화)은 3월 봄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집중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여수시청, 광양시청, 민간 드론협회로 구성해 여수산업단지, 광양산업단지, 등 집중관리 산단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 이동측정차량 4대와 드론 8대가 활용된다. 이동측정차량은 내부에 분석 장비를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면서 전처리 과정 없이 VOCs 물질 60여종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으며 드론으로는 산업단지 상공에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및 원격 감시에 사용된다.

단속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사업장은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조진용 기자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시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속도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신안 어민들 “해상풍력 발전사업 즉시 추진을”

신안지역 어민들이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2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보고회’에 앞서 “해상풍력의 불확실성으로 어업활동 투자가 무산되지 않도록 신안 해상풍력 8.2GW를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신안군연합회, 새어민회, 신안군어촌계연합회 등 지역내 10개 어업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재벌그룹의 RE 100 선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해상풍력 추진에 수산업공존 방안과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신안지역 경제활성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등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 8.2GW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안군민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과 조선산업 등의 발전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대단위 프로젝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신안 앞바다에 한국형 신형원전 여섯기의 발

전량과 맞먹는 신안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슈화됐다.

2030년까지 48조 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2만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한국판 그린 뉴딜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 정부들어 주춤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신안군이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의뢰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어업인 대체사업 및 상생모델 발굴, 어업인 피해보상 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신안=홍일갑 기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함평군, 매월 20만원

함평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21일까지이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함평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51회 강진청자축제 성황 10만6152명·4억5000만원 실적

강진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제51회 강진청자축제’의 총 방문객 수가 10만 6152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겨울 끝, 봄의 시작’으로 개최 시기 변경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청자축제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번 축제는 지난 청자축제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청자 판매 1억9431만3000원, 농산물 판매 3035만1000원, 먹거리 타운 매출 2억814만2000원, 하멜촌 카페 매출 1903만원 등 총 4억 5183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2018년 총매출 3억 6962만 원과 2019년 2억 6171만원을 뛰어넘었다.

30%까지 할인한 강진 청자의 판매액은 1억 9431만 원을 달성하며 직전 대면 축제였던 2019년, 청자 판매액인 1억 4164만 원이나 2018년 1억 4164만 원을 모두 추월했다.

체험행사 중 △눈썰매와 짙라인 △청자갈 족욕 체험 △하목가마 장작패기 △힐링 불명캠프 △청자성형물레 순으로 체험객이 많았다. 축제 정체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했다. 새롭게 개발한 ‘하멜 커피’를 선보였으며 ‘하멜 맥주’도 무료 시음회도 실시해 3월 31일~4월 2일 개최되는 전라병영성축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시, 시내버스회사 경영투명성 확보 재무관리단 파견

목포시는태원여객(주)·유진운수(주)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시내버스 운행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해 시와 시의회, 버스회사가 참여한 경영개선 회의 결과 재무관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버스회사의 재무상태 파악 및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 등 경영개선안 도출을 위한 재무관리단 파견은 이날부터 시

재됐다. 재무관리단은 단장(시 주무과장)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단원 4명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버스회사의 수입과 지출, 차량 정비, 배차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버스회사 경영실태 전반을 살펴보

고, 실효성 있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가 도출할 예정이다.

목포시내버스회사 측은 경영개선 회의에서 논의된 버스감차, 탄력배차 등의 경영개선안을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할 예정이며, 진행 중인 노선개편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정기찬 기자